

2009년 8월 뉴스레터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드립니다. 지난번 편지를 드린 후 반년이 훨씬 넘었으니 편지를 드리지 못한 사정을 여러 가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California에 이사 온 후 약 반년을 아파트에 살면서 짐을 다 풀어놓고 살지 못한 불편함 때문이었고, 또 집을 보러 다니는 일에 많은 시간과 신경을 소모했습니다.

이사 온 후 반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었고, 그 후 집 안팎을 수리하는 일과 사소한 문제들이 많은 시간과 생각을 아서 왔습니다. 더욱이 몸과 마음이 젊은 시절처럼 쉽게 움직여 주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모로 안정이 되었으니,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도록 방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 집이 Ontario, CA 국제공항에서 약20-30분을 운전하여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2011년 5월 21일은 20개월이 좀 남은 장래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어려운 때를 성경 말씀으로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연락해 주세요.

이대우 가족 드림.

7/30/2009

존경하는 선배님과 사모님들, 그리고 동문 여러분께 드립니다.

지난번 동문회 모임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뵈게 된 선배님들과 동문들을 만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내가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출신이구나 하는 과거를 회상하며, 깊숙이 챙겨 두었던 옛적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이가 들면서 딸네 집 가까이 와서 사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하에 미국 동부에서 California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가 이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물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성경연구회(복음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사 온 후 근 5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딸네 식구와 사돈댁 식구에게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며, 세상에겐은 무서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2011년 5월 21일에 시작하여 10월 21일까지 5개월 동안 환난 고초를 받은 후에(계9:10)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도표 바로가기)

죽고 사는 문제: 어떤 종교에 근거를 둔 허무한 얘기를 “구태여 특별한 취지를 가지고 모이는 동문회에서 의논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적용이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목표로 하는 어느 취지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공군사관학교 동문회의 취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著者)는 하나님 자신 :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발견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근 2000년 전에 완성되었고, 그 후 신구약 성경으로 편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고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직각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성경을 기록한 책, 하나님의 책으로 믿고 가르쳤고 교파와 교리의 기본을 성경말씀에 근거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 모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게 될 때 성경의 권위를 발견합니다. 성경은 절대자의 말이며, 완벽하신 창조주의 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또한 완벽하며 절대적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일이며, 또한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실상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발행하신 후 근 20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단 12:4,9)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경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의 대부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존경한다는 것이지만 그의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의 지극히 적은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신학이 가르치지 못한다 : 가끔, 어떤 목사님은 “신실하시고 또 신령하다”는 찬사를 받습니다만, 그 찬사는 목사님이 “아주 착한 종교인”임을 지적하여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종교가 미치지 못하는 훨씬 높은 차원(次元)에 있으며, 신학을 포함한 어떠한 학문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지경을 말하며, 그 지경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히11:1)이지만 그 실상이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이며, 거의 예외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만일 나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다

면 내가 그 믿음을 언제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얻은 믿음은, 내가 “불도를 닦은 후 극락에 간다” 던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인간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인도교의 믿음과 다른 점이 없게 됩니다.

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 그러나 가르치는 기독교는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믿으므로 되는 일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행하심을 성경에서 읽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믿음은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교회교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개혁교단의 교리를 보더라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상세한 교리문답이 있어, 그 교리를 시행 할 때만 교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의 신분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파는 자기들의 특수한 교리를 고수하고 강조하며, 다른 교파에 대하여 배타적일 수 있고 또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배우는 일에 등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성경을 번역한 성경학자들의 신앙 속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예를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라고 번역한 것이며, KJV번역(영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번역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번역하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사를 계획하시고 시행하신다는 그의 주권을 생각하게 되며, 나의 가는 인생도 내가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마치 나는 그리스도의 로봇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computer로 작동되는 로봇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시시로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를 드릴 줄 알며, 그의 계획에 대하여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막12:30)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인간 구원계획은 마치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심이,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神妙莫測)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 139:14)라고 다윗 왕이 말한 것같이,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감상하고 감탄하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다만 놀랄 뿐입니다.

시한폭탄, 성경 :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상세하고 완성된 구원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알기 위하여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들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는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셨고, 20세기 말엽에 들면서 마치 시한폭탄이 터진 것같이 갑자기 인간들이 깨닫도록 성경말씀을 세상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과제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구원에 대한 것이지만, 66권의 성경은 이 사랑의 모든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세상 종말에 대한 기록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냐?”하는 질문을 가장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이 “성경은 말세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서가 특히 말세에 대한 책이며, 신약을 쓰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과거에 누구도 깨닫지 못한 사건들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첫째 성경의 저자가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용된 모든 단어와 문구와 문장이 완벽하며 깊은 뜻이 있습니다.
2. 성경에 사용된 숫자와 연대와 족보는 창조의 역사와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자료입니다.
3. 책의 저자는 반드시 독자가 누구인가를 예상하고 책을 쓰는 것 같이, 완벽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독자가 세상 종말, 20세기 말엽과 21세기에 사는 택하신 백성들임을 정하시고 쓰신 것입니다.
4. 구약성경의 이야기가 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극소수만이 성경에 접할 수 있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20세기가 될 때까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세에 사는 우리를 위하여 쓰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성경에 대한 긴 서론(序論)을 드렸고, 성경은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에 대한 지침서(指針書)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종말, 2011년 :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는 표현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 상관없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막연하게 그저 “말세가 되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숫자는 마치 한국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같이 신자들을 사기(詐欺)하고 금품(金品)을 받기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성경만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물론 2011년이라는 결론은 하루아침에 내려진 결론도 아닙니다.

이 결론은 우주의 창조가 BC 11,013년에 이루어졌다는 공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공부는 창세기 5장과 11장에 “누구누구는 누구를 낳고”라고 한 창세기 연대의 뜻을 문장 속에 명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또한 2011년이 세상의 종말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날짜에 대하여는 첨부한 도표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Harold Camping 씨의 다음 7가지 책을 소개합니다.

1. Adam when? (번역된 책은 없음)
2. 교회시대의 끝 그리고 그 이후 / 3. 곡식과 가라지
(이상 두 권의 번역을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고”로 복음회에서 발행하고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4. First Principle of Bible Study (번역된 책은 없음)
5. I Hope God will save me (번역된 책은 없음)
6. Tim has and End (번역된 책은 없음)

7. The perfect Harmony of the member of the Hebrew King (번역된 책은 없음)

전도서 8장 5-6절에는,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무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에 대한 자초지종(自初至終) : 이 구절에서 “판단”은 히브리어 “mishpat”이며, 구약 성경에 415번이 사용되었고 영문번역에는 약 300번이 ”심판: judgement”으로 번역된 것으로 봐서, 영문 KJV의 번역대로 “시기와 판단(time and judgement)”은 ”시기와 심판“으로 번역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8장 5-6절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명령을 지키는 자, 지혜자)은 그들이 어떤 시기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심판일의 날짜가 예정되었고, 또 그 날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말세에 대하여 “세상은 말세가 오니 조심하라”는 정도의 기록이 아니고, 말세에 대한 날짜를 포함한 자초지종(自初至終)이 기록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말세의 징조 : 성경의 주제가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아주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 : 성경이 말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징조를 말하며 또 그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바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답변을 합니다. 말하기를 “말세가 된 것을 시인하지만 그 날짜만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가르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말세에 있을 사건들과 일대일로 비교하여 깨닫도록 기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하시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에게 어떻게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다음 구절 마태복음 24장 37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위 구절을 읽고 우리가 혼돈할 수 없게 하는 다음 구절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라고 하신 점입니다. 노아의 때에 그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인구가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의로운 전도자”(벧후2:5)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그 때 노아 자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120일 동안 방주를 짓고 그 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설교를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산꼭대기에 방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세상은 보았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우습게 보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2011년에 세상 종말을 예고하는 우리는 노아와 같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무서운 종말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 비웃음

이나 또 어떠한 취급을 당해도 이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도적과 같이 오시는 예수님 :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시기를 “도적과 같이 오리니”(마24:43 살 5:2-4)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도적으로 비유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설명이 따르며, 구원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시지 않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살전5:4-5)

또한 아모스 3장 7절에 하신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 :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직각(直覺)적으로 느끼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변하는 기상과 지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철없는 군소 국가들이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 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는 주로 “패역하는 나의 백성”을 지적하셨고(사30:9 겔2:5),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 날 것을 말씀하십니다(마24:24).

늘 네 교회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3장에는 초대교회의 상태를 기록하셨고,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말세에 가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수가 급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거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임을 암시하셨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참 복음을 혼돈하는 집회가 난무(亂舞)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참 믿는 자라면 꿈에서 얻은 계시를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또 신유를 믿는 모든 무리들과 거리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모든 예언서가 거짓 선지자들을 지적하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곳은 바로 교단과 그 교회 안에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비참하도록 문란해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을 두고 계신 곳이 교회임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게 됩니다.

또 다른 말세의 징조 : 다른 말세의 징조를 몇가지 살펴 보겠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마24:38):라고 하신 말씀에 유의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과 교회에서 성에 대한 윤리가 극도로 타락했다는 점입니다. 이혼율의 급증은, 건전한 국가의 구성요소가 건전한 가정에 있다는 옛날 가르침에서 떠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국가들이 붕괴 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동성애자들(homosexuals) : 하나님의 법으로는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할 [모세 때의 사형법(死刑法)은 돌로 쳐 죽임(stone)을 당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이방 신을 섬기거나, 간음하는 경우나, 짐승과 교

미하는 자, 또한 동성애자들이 받은 형벌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형에 해당되며, 사실상 모세의 법은 세상 종말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형벌을 상징합니다.] 동성애자들 (FP20:13)의 수가 늘어나고 그 활동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이 동성애자들이었음을 읽을 수 있고(창19:5), 이러한 기록은 현 세상의 동성애자들이 조직적이고 정치적인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상당히 많은 교회가 동성연애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선언을 하고 있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증한 일이며(레 18:22 20:13), 말세가 다가왔다는 현저한 증거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서로 부부처럼 사는 것을 “장가 가고 시집가고”하는 것으로 합법화(合法化)하려는 노력이 현저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 인구가 다 동성애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상 종말이며, 인간의 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1장27절에는 동성애자들의 행동은 모든 죄악을 대표하는 큰 죄악이며, 창세기 18장 19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이유가 바로 그 동성애자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세의 징조 :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성경구절을 계속해서 공부한다면 그 가지 수가 한없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독자가 말세에 사는 자기의 백성임을 정하시고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세에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한다(계13:13)거나, 일곱 인을 뿜 때라던가, 선물을 교환한다”는 등의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비유로 쓰셨고 그 해답을 그 구절에 사용하신 단어와 어구들을 성경 속에서 다 찾아볼 때 그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시간을 내서 서로 성경공부를 할 锈린?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방문하실 수 있도록 여유가 있는 방(Living Room)이 있는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다음 별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ALM Ministry,

6694 Palo Verde Place Rancho Cucamonga, CA 91739

전화 : 909-803-0491

5기 사관, 이대우 드림

7/29/2009